

2. 尖端 産業 動靜

■ NEC, 삼성전자와 차세대 반도체 공장 건설 합의

반도체업계의 제
휴 움직임은 엄청
난 규모의 설비투
자와 개발비용 부
담을 경감시키기
위한 것임

○ 巨額의 投資 分擔

- NEC와 삼성전자, 토시바(東芝)와 IBM은 각각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에 상호 제휴하기로 합의하였음
- 兩社는 각각 新공장의 제조설비 공동개발, 기술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9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반도체업계는 제조장치의 고도화로 新공장의 설비투자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현행의 반도체 공장 1개소당 건설 투자액은 1천억엔 정도이지만 새로운 웨이퍼를 사용하면 약50% 증가한 1500억엔 이상 소요될 것임
- 兩社의 제휴는 막대한 설비투자와 개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임

차세대 설비 공동
개발을 통한 제휴
는 하이테크 기기
의 보급 및 低價
格化를 촉진시킬
것임

○ 차세대 설비 개발

- 제휴의 대상은 256메가 DRAM 등 차세대 반도체임
- 256메가의 高集積 반도체는 멀티 미디어 機器의 디지털화에 不可缺한 전자부품이지만, 대량 보급을 위해서는 양산화 기술 및 생산 코스트 절감 노력이 필수적임
- NEC와 삼성전자는 300밀리 웨이퍼를 基板으로 하는 공장의 설계, 설비 개발 등에도 상호 협력할 방침을 정하고 兩社의 기술진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였음
- 300밀리 웨이퍼를 사용하면 현행의 200밀리 웨이퍼에 비해 칩 1개당 코스트가 20%정도 절감됨
- 素材인 실리콘 웨이퍼를 직경 300밀리 웨이퍼로 사용함으로써, 각종 제조장치를 포함한 라인 전체의 개량이 불가피해짐
- 兩社는 삼성전자의 構造設計技術, NEC의 생산기술 등 각각의 비교우위 분야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공장설비의 공동개발에 적극 협력할 방침임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997. 7. 25)

■ 2001年 美國의 미디어 市場 展望

미국 미디어시장은 매년 7.5%씩 성장하여 2001년에 4,20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

- 2001년, 미디어 관련 시장 4,200억 달러
 - 정보통신 분야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시장은 2001년에 2,500억 달러
 - 1996년의 1,770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매년 7.5%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
 - 여기에다 관련 분야의 시장을 포함하면 4,200억 달러에 달할 것임

뉴미디어는 시장 대체 보다는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클 것임

- 시장 전망의 특징
 - 뉴미디어는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기 보다는 미디어 시장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임
 - 미디어 접촉 시간: 1996년 현재 1일 평균 9시간 30분이었던 것이 2001년에 9시간 42분으로 확대
 - 1인당 미디어 비용 지출: 512 달러에서 685 달러로
 - 쌍방향 디지털 서비스가 음반 소프트웨어 시장 잠식
 - 영화관 보다는 가정용 비디오 선호
 - 2001년에 가정용 비디오 판매와 대여 시장은 극장 수입의 3 배에 달하는 2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임
 - 케이블 TV,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의 시청과 광고 시장이 기존의 지상파 방송에 비해 크게 성장할 것임

성장성이 높은 분야는, 쌍방향 디지털 서비스, 가정용 비디오, 유료 방송 서비스 등임

<미국의 미디어 비용 지출 구조(1996년 불변 가격)>

| | 1996년(%) (1인당 지출액: 512 달러) | 2001년(%) (1인당 지출액: 685 달러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입자 비디오 | 27.4 | 28.7 |
| 서적 | 16.2 | 15.0 |
| 홈 비디오 | 15.1 | 16.6 |
| 음반 소프트웨어 | 11.2 | 10.4 |
| 신문 | 9.9 | 8.2 |
| 쌍방향 디지털 미디어 | 7.7 | 11.1 |
| 잡지 | 7.2 | 6.0 |
| 극장 영화 | 5.3 | 4.0 |

(Financial Times, 1997. 7/29)